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기생충학*

Parasitology in a Changing Society

조승열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지금은 없어진 서울의대 구내 구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건물에서 “대한기생충학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한 것이 1959년 1월 15일(목) 오후 1시 30분이었고, 창립한 학회가 제 1회 학술대회 및 총회를 연 것은 1959년 11월 21일 지금은 역시 없어진 서울대학교 병원 A강의실에서였습니다. 이 일련의 일을 지금 우리는 기념하려고 있습니다. 먼저 당시 창립 총회를 열고자 하는 취지문이 있었지만 학회 간행물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 이 글을 다시 한 번 읽어보는 것이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기생충학회 창립 취지”

새로운 축복이 기약된 기해가춘 (己亥佳春)을 맞이하여 삼가 제위의 청강을 심축합니다. 우리 사회의 온갖 부분이 침체한 중에서도 의학계만이 꾸준한 성장과정에 있는 것을 볼 때 자위하는 마음이 불소합니다. 연이나 의학의 세계적인 추세에 호응하여 각 전문분과가 독립하여 각각 자기 위치에서 정진하고 있는 작금의 현황은 실로 장족의 발전상이라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기생충이 고도로 만연되어 있고 또한 우리의 후진성을 대변하는 이 불행한 현실 속에서 응당 타 학회에 솔선하여 하나의 형태를 갖춘 학회로서 발족하여 부과된 사명을 수행하였어야만 명분이 섰겠으나 우리의 타성의 연고로 지지하여 후보를 면치 못한 것은 실로 유감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뜻있는 인사들의 학회 조직을 촉구하는 성원이 자자하여 오든 터에 만시지탄이 불무하나 숙원의 기생충학회로서의 고고 지성을 올릴려고 하오니 부디 동참하셔서 초석의 역군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앙망하나이다.

4292년 1 월 (1959년)

발기인

강석영 강형룡 권이혁 김경식 김기홍 김남식 김응진 김인달 서병설 소진탁
양재모 이성관 이병도 이보영 이영춘 이주걸 이주식 임한중 장두환 장익진
전종휘 주인호 주 일 주정균 지홍창 한심석 한응수 황종현 홍순국

기

1. 일시: 단기 4292년 1 월 15일(목) 오후 1시
1. 장소: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1. 안건: 대한기생충학회 창립총회

이 글에서 우리는 1950년대 말의 암담하였던 사회상의 일부를 읽을 수 있으며 그런 중에서도 세계적 진보 추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발전적인 행동을 하려 했던 당시 지식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글 받기인 명단을 검토해 보면 그 구성원이 임상의학자 13명, 예방의학자 7명, 미생물학자 1명, 생물학자 1명 등이 22명이었고, 기생충학자는 7명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구분한 임상의학자, 예방의학자 등은 지금 와서 구분이 명백해진 것이고 당시 학문적 분화 단계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성숙치 않아 학문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고 또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회가 대역병기(大役病期)에 머물러 있을 때에 기생충병이란 전염병의 일부로서 사회 구성원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비해 막상 학문적 연구는 미진한 것이 후진 사회의 공통적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생충학자란 말의 정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하여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생충학자의 정의에는 “이상한 장소에서 괴상한 물건을 만지작거리면서 혼자 좋아하는 고리타분한 작자들”이라는 것에서부터 “기생충학자란 난초와 같아서 오랫동안 잘 가꾸어야 하는 까다로운 존재이다. 그러나 한번 잘 길러 놓으면 세상에 아주 귀한 향기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라는 우리에게는 아주 흐뭇한 Asa Chandler의 정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정의를 다시 한 번 만들어 봄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생충학자란 기생충이나 기생충병에 대한 연구를 상당 기간 본업으로 전문적으로 하면서 이에 대한 지식의 한계를 넓힌 사람”이라고 하는 좀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정의를 채택하기로 합니다. 이 정의에 기초하면 학회 발족 당시 발기인이었던 분의 대부분이 자기의 전문분야에서 당시 역학적, 임상적으로 중요하였던 기생충병에 대해 폭넓은 인식이 있었던 훌륭한 분으로 아마 몇 안 되는 기생충학자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인간적 관계를 돈독하게 하셨던 분들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여하튼 당시 기생충학회 성립의 사회적 필요성과 기생충학자의 열성에도 불구하고 학회의 성립에는 의학계 여러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던 상황이었다고 이 분들의 도움으로 성립한 학회가 4년이지나 곧 독립성을 발휘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여기서 앞에서 제가 제시하였던 정의에 따른 기생충학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활동하였는지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4세기 말에 우리 조상이 중국식 합리주의인 유학을 국가 기본사상으로 삼아 조선 왕조를 세웠을 때 유학은 고려시대까지의 폐습을 일소하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우는 혁명적 사상이었습니다만 500년이 지난 19세기 말에 나타난 현상은 경직화된 유교 정치가 사회와 국가를 망치고 있었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당시 대역병의 시기를 조선조가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너무 탓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시시때때로 지나는 콜레라, 장티프스, 마마의 대유행으로 인구가 대폭으로 감소하는 일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1880년대 서울 주재 영국 공사관 직원이 본국에 보내는 보고서에서 서울 골목을 지나다가 창문으로 요강을 버리는 아낙네에게 오줌 세례를 받은 일, 오물냄새가 진동하고 더러운 서울의 모습을 쓰고 빨리 다른 곳으로 전보하여 달라고 불평하는 일들을 통하여 당시 서울의 상하수도에 대한 개념을 명료하게 되새길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에 밀입국한 Allen이라는 Miami 의과대학 졸업생이 조선에서 의료 선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본국 선교 본부에 내었다는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생충학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략) 내진하지 않고 금계락 (염산키니네)만 청구하는 사람에게는 10 grain에 엽전 800개씩 받았다. ... (중략)... 질병으로는 학질이 가장 많았고, 보통 질병으로는 사일열이 가장 많았다... (중략)... 특유한 것으로는 각기와 멜라노시스가 있었고, 폐이구충병과 피라리아병도 존재하는 것 같다... (중략)... 기생충병도 흔한 질병으로 회충, 조충 등은 보통 기생충으로 환자도 이로 인한 증상이 크거나 의사가 묻기 전엔 말하지 않는다. 객혈 질병도 많다. 그 중에는 폐이구충병도 포함된 듯 하나 아직 현미경도 없고 부검을 관청에서 불허하므로 이를 확인할 방도가 없다. 옴, 두슬증 (이)도 적지 않으며 나병은 신경나 (神經癩)가 많다... (후략)...

1886년 4월 10일 H.N. 알렌, J.W. 히론」

이 기록을 여기서 소개하는 이유는 아마도 서양 의학의 눈으로 우리나라 기생충병 양상을 본 최초 기록이 아닐까 해서입니다. 이 기록을 우리나라 기생충학의 시초 기록의 하나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알렌이 최초의 기생충학자였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위의 기생충학자의 정의에 따른다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아니라고 판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윗글의 내용이 과학적으로 정확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알렌이라는 의사가 의과대학 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현지에서 적용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는 의학이 과학적 지식을 적극 수용하기 시작한 때이므로 알렌이라는 직업 선교사가 과학적 지식을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생충학자로 대접한다는 것은 본인도 아마 원치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같은 이유로 1961년에 대한기생충학회 학술부가 간행한 “한국 기생충에 관한 문헌목록”에 나오는 자료는 상당 부분 기생충학 관계 자료일 뿐 자료의 저자를 기생충학자로 대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위의 정의의 정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생충학을 시작한 시기는 싫건 좋건 고바야시 하루지로라는 전문 기생충학자가 1916년 조선 총독부 병원에 고용되는 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일본 기생충학계가 지금도 세계에 자랑하고 또 존경하는 고바야시는 곧 1917년 경의전, 1926년 경성제대의 학부에서 교수로 근무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기생충학다운 기생충학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일본인이 대부분이었던 그 제자와 함께 고바야시는 1945년 일본으로 다시 쫓겨날 때까지 우리나라의 기생충 및 기생충병에 대한 논문 450여 편을 썼습니다. 고바야시 하루지로와 현재 우리나라 기생충학과의 관계는 대단히 소원합니다만 고바야시와 그 교실원이 과학적으로 이루어 놓은 업적 자체를 억지로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로 생각합니다. 일본인이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일을 갚는 방법은 그 잘못을 되갚지 않는 데에 있으며, 고바야시 교실원이 우리나라에서 한 일이 싫으면 그 교실원의 업적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해서 극복하는 길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고바야시 교실에는 이상스럽게도 당시 조선인 기생충학자가 적었습니다. 1930년대 이후 조선 의학계에서는 박사학위를 받고 개업하면 성업이 되어 대학 각 교실에서 연구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만 경성제대 의학부 제 2세균학교실이었던 기생충학 강좌에는 조선인 학위과정생이 적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바야시가 국수주의자가 아니었나 하는 의심도 있었지만 그것은 그렇다기보다 고바야시의 학문적 엄격성 때문이었다는 것이 중평입니다. 당시 경의전 출신의 안정호라는 분이 학위과정생이 되어 연구하였으나 지지부진하여 학위 수령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학위를 빨리 취득하려 했던 조선인에게는 인기 없는 교실이 되었었다는 것이 당시 병리학교실 의국원이었던 고 이제구 교수의 증언이었습니다. 고바야시의 학문적 엄격성을 증명하고 국수주의자는 아니었다는 증거가 박태채라는 조선인 교실원의 존재입니다. 박태채는 평북 선천군 부농의 자제로 오산학교와 연희전문 수물과를 거쳐 1929년 도미

하여 캘리포니아주 스톡턴 (Stockton)시에 있는 패시픽 칼리지 (College of the Pacific, 현 University of Pacific) 동물학과 A. Noble 교수 밑에서 흡충류 분류학으로 이학석사 학위를 받고 다시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에서 Kofoid 교수 밑에서 1년 간 연구하다가 1936년 조선에 귀국하여 고바야시 교수 밑에서 우리나라 야생 동물의 흡충류 분류학 관계 논문 10편을 쓰고 1943년 평강 결핵요양원에서 사망한 첫 번째 우리나라 사람 기생충학자였습니다. 박태채의 논문은 기생충학관계 잡지나 교과서에 우리나라 사람 논문으로는 1970년대까지 가장 많이 인용되었었습니다. 박태채는 민족주의적인 오산학교 출신으로서 식민 정책의 산실이라는 비난을 받은 경성제대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는 고바야시와 박태채 두 사람 모두의 학문적 인격과 야심의 소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945년 해방 당시 우리나라의 자연과학 부분에 자격 있는 과학자가 44 명뿐이었다는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 기생충 학자는 분명히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서 기생충학 연구실이 어떻게 1950 년도까지 성립되어 가는지는 지난 1979년도 학회 20주년 발전 20년사에 약술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기는 정치의 시기이었지만 우리나라 의학계의 두 기둥이었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세브란스 의과대학에서는 기생충학 강의를 실시하고 있었고 학회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하며 당시 중추적인 인물이었던 나순영, 한경순 선생 등이 전후 북한 기생충학의 중심적인 인물이 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1950~1953년의 6.25 전쟁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비견할 수 없는 큰 사건입니다만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난 기생충학적 발전은 모두 외국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참전하였던 여러 나라는 우리나라의 각종 전염병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겼습니다. 기생충학분야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업적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기생충병의 화학요법 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이 있었습니다. 말라리아 치료법과 아메바 치료법의 발전, 특히 primaquine의 말라리아 근치 요법 등은 한국전 참전자에서 얻은 발전이었고, 당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던 DDT에 대해서 한국의 몸이 (*Pediculus corporis*)가 저항성을 내고 있다는 짧은 보고는 이후 매개체 전염 질환 관리법 전반에 대해서 사고의 전환을 강요한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1954년 이후 1959년 학회 창설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기생충학 분야에서 대단히 의미있고 중요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으며 이들은 그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생충학의 성격을 규정짓는 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 첫째가 1954년 서울의대 기생학교실의 독립과 곧 이어 연세의대 기생충학교실의 창설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일은 미국의 한국전 후 전쟁 복구사업으로 시행된 ICA 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의대 서병설, 임한중 선생, 서울 수의대 장두환 선생이 미국 미네소타대학 동물학과에 유학하였고, 연세의대 소진택 선생, 방역연구소 주일 선생은 미국 튜레인대학에서 기생충학을 연수하고 귀국하였습니다. 이 다섯 분이 미국 연수를 끝내고 1956~1958년의 대한의학협회 종합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학술 논문을 발표할 때에는 미생물학 분과에 속하였는데 기생충학 분야는 이미 교실이 독립되어 있어 기생충학이라는 학문 분야의 독립심도 높아진데다가 학회 발표 논문 수도 세균학 분야에 못지않게 되어 자신을 갖고 학회 자체의 독립을 서두르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를 우리나라 기생충학계의 중요한 시기로 보는 이유는 대강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이후 기생충학 연구는 일본 기생충학의 전통에서 일탈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이나 서구

의 기생충학을 직접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동물상이나 사회상이 동양의 중, 일본과 비슷한 점이 많아 배울 것이 많았으나 특히 기생충학의 방법론을 이후에 일본에서 수입한 예는 비교적 적었고 일본 기생충학계와의 교류는 개인 단위에서 이루어졌을 뿐 주류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둘째로 195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의 기생충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만연하는 기생충병에 대한 대책이었고, 따라서 응용 분야를 연구하여야 했는데 당시 구미의 기생충학 연구는 이 응용분야에서 마침 발전하고 있었던 때이므로 학회 창설 이후 지금까지의 연구는 기생충병 연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의학, 수의 분야의 기생충학 분야가 발전한 반면, 생태, 분류, 진화 등 순수생물학적 기생충학 분야는 거의 무시되다시피 한 성격은 이때에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생충 분류, 생활사의 연구가 1980년대 이후에 나타나는 상황을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이 시기에 우리나라 의학계에 큰 도움을 준 Scandinavia 세 나라의 의료진은 지금의 국립의료원을 세우면서 우리나라 의학계에 큰 도움을 주었는데 특히 폐흡충에 의한 신경 질환에 대하여 연구하여 좋은 업적을 남겼고 이것은 다시 우리나라 기생충학 연구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임상의학자가 기생충학회 창립에 참여하는 데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 초 대한기생충학회는 한심석 교수, 이영춘 박사, 전종휘 교수께서 회장직을 맡아 발전시키시고 학회 잡지도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1963년 12월 서병설 교수가 학회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대한기생충학회는 기생충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시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시기에 공업화를 적극적으로 서두르고 있었고 사회 각 분야, 특히 의학 분야는 분과학회가 전문적으로 빨리 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생충학회 창립 때에 발기인을 하셨던 여러분께서는 고유의 전공분야 발전에 따라 그 곳에 몰두하여야 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기 이후의 지금까지의 대한기생충학회의 발전 과정은 제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도 일부 계시겠지만, 한 마디로 서병설 교수의 서울의대 기생충학교실과 소진택 교수의 연세의대 기생충학교실이 서로 자극하고 경쟁하는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서울수의대 장두환 교수, 가톨릭의대 주 일 교수와 최원영 교수, 부산의대/경희의대 주정균 교수, 경북의대 이성관 교수/최동익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노인규 교수/김정순 교수, 보건연구원 김동찬 박사, 전북농대 이재구 교수 등께서 좋은 업적을 많이 남기시고 후배들을 독려하셨습니다만 워낙 두 거인의 경쟁이 격심하였고 영향력이 컸으므로 모두 이 두 교실의 영향력 아래에 가렸다고 해도 큰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학문 분야에서 인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이 좋은 면과 바람직하지 않은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하는 것이어서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실이 그러했다는 것이고, 이런 상태는 두 교수님의 개인적인 성격과 맞물려서 다음 단계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소진택 교수께서 홍익인간적인 인간 중심의 교실 운영과 조직으로서의 기생충학자 집단을 중시하는 철학을 가졌다면, 서병설 교수는 치지격물(致地格物)적인 학문 태도와 개개인 능력의 단련, 그리고 논리적인 측면을 강조하였습니다. 좀 과장하면 우리나라 기생충학 발전의 큰 원동력은 경쟁자가 강력하게 존재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시각으로 지난 학회 활동을 요약하는 것은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였으면 하고 바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 이제는 머지않은 장래에 싫으나 좋으나 우리 학회를 이끌어 오신 선생님을 명예회원으로 모셔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명예회원을 어떻게 대접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는 때입니다. 이 자리에서 학회 창설 이후 있었던 일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 한두 가지를 정리하여 우리 학회가 그간 어떻게 처신하였고, 우리 사회의 기생충학적 지식의 수요를 충족시켰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예가 지금은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로 변한 사단법인 한국기생충박멸협회입니다. 1966년 기생충 질환 예방법이 국회를 통과, 선포되고, 그 후 예방법에 기초한 기생충박멸협회가 창설되고, 몰락하고, 재건되고, 번영하는 과정에 기생충학회 회원의 간여가 있었습니다. 기생충박멸협회가 발전하는 과정이야말로 기생충학자의 연구와 사회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 전형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협회 창립의 법적 근거 마련, 사업의 성격 규정, 장비구입과 선택, 새로운 대변검사법의 도입, 새로운 구충제의 도입과 새로운 사용법의 개발, 회중 관리 원칙의 역학적 근거, 토양매개성질환의 우리나라에서의 장기 전망 등 학회 연구 결과 하나 하나가 모두 즉시 협회의 사업 정책 및 사업 내용으로 전환되어 공업화가 무서운 속도로 진행하던 격동의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유능한 민간단체로 성장하도록 도왔습니다. 기생충박멸협회의 강한 적응력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기생충학적 사태를 잘 관찰하고 때맞추어 시의 적절한 연구결과가 나온 데에 기초한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의 예가 우리나라의 기생충 치료제 개발 과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생충 치료제를 한 가지도 독자적으로 개발한 일이 없는 나라이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구충제나 치료제를 거의 모두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제약계가 외국의 압도적인 제약계의 시장으로 머물던 1970년대까지 기생충학회에서는 외국에서 새롭게 개발한 구충제의 효능을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또 우리나라의 초기 경공업의 성공으로 구충제 시장이 커지면서 이를 빨리 이해한 제약계 일부가 구충제 합성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실마리가 잘 풀려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생충학계는 제약계에 시기에 알맞게 치료제 정보를 제공하였고, 제약계는 이를 잘 소화하였습니다. 구충제 합성 성공례는 항결핵제 합성과 함께 다른 분야 약제합성과 개발에도 많은 자극이 되어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나 1987년 물질 특허의 벽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사람에 사용하는 구충제의 판로 한계를 제약계는 수의 약품으로의 전환, 수출, 플랜트 수출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생충학은 우리나라기생충 질환이 변화하는 양상을 역학적 자료로 잘 파악하는 데에도 성공적이었습니다. 결핵 전국 통계의 좋은 예를 본받아 기생충학회는 기협과 협조하여 1971년, 1976년, 1981년, 1986년에 각각 전 국민 1,000분의 1 표본을 대상으로 자료를 모아 급변하는 사회에서 기생충 감염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제시하였고, 이제 1991년에는 줄어들어 있을 기생충 감염을 푸근한 마음으로 확인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기생충 질환 양상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학회 회원들의 연구 업적에 대해 외국에서도 관심을 표하기 시작하고 인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원의 연구 방향도 크게 유행하던 기생충병 연구 이외의 분야로 확산되었습니다. 서울의대

의 장내 흡충류 감염 연구, 연세의대와 한양의대의 자유생활아메바 연구, 고려의대, 중앙의대의 유구 낭미충증 연구 등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 초 Harvard를 중심으로 일어난 “현대생물학적 기법의 기생충학에의 응용” 운동이 우리나라에도 곧 영향을 주어 특히 혈청학적 진단 분야에서 발전이 있도록 하였고, 분자생물학, 세포면역학, 세포생물학 분야가 기생충학 분야에 응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젊은 기생충학자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 오스트렐리아, 일본 등지에서 연수하고 돌아와 늘어나는 의대의 기생충학교실을 창설하면서 진출하여 각자의 독립적 연구를 시작하고 분화,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기생충학자들이 이용한 연구 재원과 진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학회 창립 후 30년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개괄하여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생충학의 연구 재원은 기생충학을 의과대학에서 주로 연구하였다는 성격 때문에 대학원 박사과정생들의 개인적인 투자가 큰 몫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근본적으로 큰 재원일 수는 없는 것이고 미미한 것이었으나 이것을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한 셈이고, 기생충학자에게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연구비라는 것을 처음 준 것이 1967년이며, 박사과정 연구생 제도가 끝난 1975년 이후에 가서야 연구비의 증액이 있었다는 점을 되돌아보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지금이 사실은 시작이라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1980년대 중반기부터 공학계열에 투자하기 시작한 대단위 연구는 아직도 생명과학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1980년대 말에는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언제나 기생충학 연구비의 주종은 우리의 노력하는 태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1959년 학회 창설 당시 우리나라에서 기생충학자가 근무하면서 봉급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었던 자리는 전국 8개 의과대학과 방역연구소, 수의과대학과 안양가축위생시험소 등이었으나 자격있는 사람이 모자라 그나마도 충분히 자리를 메꾸기가 힘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문리대 생물학과에서는 기생충학 강좌가 잠깐 개설되었다가는 폐강되곤 하였습니다. 지난 30년 간 의과대학의 수는 31개가 되어 기생충학자의 일할 터전으로 가장 넓은 자리입니다. 의과대학 기생충학의 좋은 점은 교실 단위이므로 몇 사람 정도로 구성할 수 있어 기생충학 강좌 당 교수 1명이 있는 수의과대학 보다 기생충학자 고용처로서 당분간 유리한 상태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과 안양가축위생연구소의 형편은 서로 달라서 보건연구원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기생충과의 확충을 기피하는 경향입니다만 이는 잘못된 정책임이 명백하며, 안양가축위생연구소는 현명하게도 기생충과를 계속 확충,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대학 생물학과 중 기생충학을 강의하는 곳이 3곳뿐이라고 알고 있으며 앞으로 이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물학, 동물학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현상은 타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산대학에서도 기생충학 강좌가 있으며 매우 유용한 분야로서 확충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약계가 생명 공학을 이용하고, 진단 시약, 구충제 개발 등에 투자하려면 기생충학자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 세계 국가의 이상을 꾀려면 외무부, 국방부, 보사부, 건설 협회, 해외 선교 단체 등에서 기생충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기가 올 것을 예견하고 또 대비하여야 하겠으나 아직은 때가 아닌 듯합니다.

기생충학은 기생충과 기생충병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하는 분야로 정의될 뿐 구체적으로 어떤 기생충을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연구하여야 하는가는 각자가 정하여 매진할 뿐입니다. 현재 우리 기생충학은 기형적으로 의학기생충학이 중심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기초과학으로서, 수의기생충학으로서,

국제 질환 연구의 한 분야로서, 여행자 의학으로서 각 분야가 계속 발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30년 간 대한기생충학회는 과학단체로서, 대한의학협회,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World Federation of Parasitology 등의 회원으로 어느 분야이건 기생충학 분야의 발전과 관계된 협의체라면 회원 단체로 적극 가입하여 발전을 꾀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지난 30년 간 숨가쁘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에서 적응하고 발전에 동참한 대한기생충학회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 잠깐 우리 학회가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일이란 예측하기 어려우나 여기서는 희망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또 일반 원칙을 제시하여 틀렸을 때의 책임을 모면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 학회의 연구 태도는 그동안 “국내 문제를 국제수준으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로 얻은 연구 결과 중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세계의 기생충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따라서 위의 “국내 문제를 국제 수준으로” 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지금까지 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도 면밀한 연구가 계속되어 수입기생충병을 포함하여 국민 개개인이 기생충병 문제나 기생충이 연관된 사회 문제에 대해 보다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보다 더 기초적인 분류학, 생태학, 생리학, 생화학, 면역학,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적 분야 연구에 치중하여야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기생충학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의 기생충학계가 발돋움하는 데에는 우리들이 극복하여야 할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 기생충학 분야가 발전할 만한 투자가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그보다 먼저 우리는 우리 주변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생충학 연구에 있어서 배타성을 배제하고 협동하여 남의 엉뚱하고 바보같이도 들리는 이야기에든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현명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도 안 되는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타기하여야 하며 개방적인 태도를 몸에 익히고 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은연중에 지금 말씀드린 단점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기생충에 대한 연구 논문이 있다고 해서 그 기생충 이야기만 나오면 나서서 공격하여 몰아내는 듯한 배타성이야말로 학문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해롭고 발전 저해 요소일 뿐입니다. 그리고 더 빨리 외국의 과학적 업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대한기생충학회 회칙 제 2조와 제 8조의 “일반 국민에 대한 계몽”이라는 말은 당연히 “국민에 대한 전문가적 자문”이라는 말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기생충학회가 또 해야 할 일은 재정자립도를 높여 가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생충학 분야에 대해 얼마나 투자될 것인지는 잘 모르며 우는 아이에게 젖 주는 세상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멸할 뿐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회가 앞으로 세계적인 기생충학 연구 국가로 계속 발전하려면 유능한 기생충학자를 더욱 육성하고 해외에도 파견해야 하며 또 우리나라에서 연구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을 맞아 들여 일꾼으로 키워나갈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수행하려면 각 기생충학 연구기관이 부자이어야만 하겠으나 학회 자체도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자립하여 학회로서의 활동에 민활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재 학회의 재정 자립도는 기대에는 못 미쳐서 외부 보조금을 제하면 적자인 상

태이며 따라서 보조금은 곧 끊어질지 모른다는 각오로 학회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부금의 유도, 단체 회원제를 회칙에 도입하는 문제, 학회 잡지 게재 논문의 저자 부담금 비율 인상, 학회 회비와 학회 참가비의 현실화, 학회 간행물의 제작과 판매, 학회 운영비의 근검 절약 등으로 재정을 튼튼히 하여 학회가 재단 법인화 하거나 학회의 유지를 돕는 또 다른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학회 자체의 건물을 소유하고, 사무원을 고용하고, 회원의 학회 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지금과 같이 연구 인력이 학회 업무를 담당하는 일을 줄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적인 생산을 큰 생산으로 일정할 줄 모르던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기생충학논문의 0.5%를 생산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것을 1% 이상의 수준으로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기생충학이라는 학문이 얼마나 유용하며 소중한 국가적 자산인가를 이해하도록 과장 없이 소개해야 합니다. 이 분야가 조용히 발전한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는 것과 밀접하다는 것을 알려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사회에서 제 몫을 하는 기생충학으로 기여하고 우리나라가 제국주의적 방법인 아닌 인간주의적 철학으로 세계에 도움이 된 나라라는 평판을 얻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믿습니다.

*1989년 10월 26일 대전 유성리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기생충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움 및 대한기생충학회 제 31회 학술대회 초록집에 실린 주제발표 I <회장 인사>의 내용으로 Korean J Parasitol. 1990 Dec;28(Suppl 1):1-12 에 영문으로 다시 실림.